

군산, 탄소중립 연료 생산 거점 된다

전북 'CCU 기술고도화' 선정
이퓨얼 기반 구축 본격 추진
군산저 고상 합성원유 실증
새 성장동력 기대

전북특별자치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2025년도 차세대 CCU 기술고도화' 공모사업에 28일 최종 선정됐다. 전북은 이로써 수소·이산화탄소를 결합해 이퓨얼(e-Fuel) 원료물질인 고에너지밀도 고상 합성원유의 전주

생산 실증을 본격 추진한다. 이퓨얼은 물을 전기로 분해해 얻은 수소와 이산화탄소를 합성해 만드는 차세대 방식의 친환경 연료다. 특히 대기 중 이산화탄소를 포집해 활용하는 탄소중립연료로서 '전기차 전환이 어려운 항공, 해운, 국방, 내연기관차' 등 다양한 분야의 탄소중립 실현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군산 국가산업단지에 구축되는 이퓨얼 생산기술 기반은 재생에너지로 만든 수전해 수소와 산단에서 포집한 이

산화탄소를 활용해 고에너지 밀도의 고상 합성원유를 생산한다. 이 합성원유는 정유 공정을 거쳐 지속가능항공유, e-디젤(합성 디젤), e-가솔린(합성 휘발유) 등으로 상용화될 예정이다. 사업 기간은 2025년 4월부터 오는 2028년 12월까지 약 3년 9개월간이며, 앞으로 국비 186억 원, 도비 15억 원, 시비 20억 원, 민간부담 19억 원 등 총 240억 원이 투입된다. 사업은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주관 '한국화학연구원, 프로콘에너지너링,

경북대, 건국대, 군산대, 울산과학기술원, 한국CCUS추진단' 등 산·학·연 8개 기관이 공동으로 참여한다. 이번 사업은 전북자치도가 지난 2023년 11월부터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군산대학교, 수요기업들과 함께 사전 기획을 추진한 결과물이기도 하다. 지방비 확보 및 철저한 공모 대응 전략을 바탕으로 최종 선정에 성공했다. 향후 기술고도화 중심으로 한 실증·상용화 연구가 본격화될 예정이다. 특히 실증 거점인 군산은 대규모 이산화탄소 포집이 가능한 산업단지와, 전국 최고 수준의 풍력·태양광 에너지를 갖춘 새만금 재생에너지 클러스터가 인접해 있어 최적의 조건을 갖춘 지역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재명 후보 대선후보 공식 활동 돌입
이재명 후보는 대선 후보 선출 다음날인 28일 당 최고위원회의에 출석하고 함께 국립현충원 참배를 하는 등 대선 후보로서의 공식 활동에 들어갔다. <사진=박찬대 의원>

이를 기반으로 군산은 지속가능항공유(SAF) 공급지, 친환경 선박연료 공급기지로 확장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유럽연합은 2025년부터 기존 항공유에 지속 가능 항공유(SAF)를 2% 섞도록 의무화하고 우리나라도 2027년부터 지속 가능 항공유(SAF)의 혼함을 의무화할 예정으로 그 비중은 점점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군산시의 실증사업이 기술개발을 넘어 상용화를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국제 산업경쟁력을 확보하는데 핵심적 수단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김영태 기자 /군산=지승길 기자

“지역채널 지역사회 삶의 기반” 정동영, 케이블TV 지원 앞장

케이블TV 정책간담회 개최
미디어 공공성·경쟁력 논의
케이블업계 “규제 개선 시급
미디어 지역성·다양성 지원”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와 함께 ‘케이블TV협회 현안과 제도개선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황희만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회장, 이종희 SO협의회장, 박성호 PP협의회장 등 케이블TV 업계 대표자 10여 명이 참석했으며, 정동영 의원과 이훈기 국회의원(방송콘텐츠특별위원회 위원장) 등이 함께해 업계 현황을 공유하고, 정책적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황희만 협회장은 “글로벌 OTT의 급성장과 통신 중심 미디어 시장 재편 속에서 케이블TV 업계는 생존의 기로에 서 있다”며 “특히 지역미디어로서 수행해온 공공적 역할이 무너지는 위기에 처해 있어 신속한 제도개선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케이블TV업계는 이날 간담회에서 ▲콘텐츠 사용자 거래체계 제도 마련 ▲광고·심의 규제 완화 ▲SO 방송통신발전기금 면제 및 PP 콘텐츠 제작 세액공제 확대 ▲지역채널 법적 보호 및 지원 등 주요 과제를 제안했다. 정 의원은 “SO와 지역채널은 단순



정동영 의원

한 사업이 아니라 지역사회의 삶과 이야기를 지키는 미디어 기반”이라며 “방송 공공성과 산업 경쟁력의 균형을 위

해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충실히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콘텐츠 대가 문제, 홈쇼핑 송출수수료 협상 구조, 방송·광고 규제 등 복합적인 현안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유료방송 생태계의 지속가능성도 담보할 수 없다”며, “국회 차원에서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케이블TV협회는 “미디어 산업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지역채널 보호와 커머스 방송 법제화가 시급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는 비공개로 전환된 이후 SO·PP 대표단과 심도 깊은 현안 논의가 이어졌으며, 참석자들은 “단순한 규제완화가 아니라 건강한 미디어 생태계 유지를 위한 사회적 책무와 산업적 균형을 함께 고민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정 의원은 “방송산업은 민주주의를 떠받치는 공공재”라며 “지역성과 다양성을 지켜내는 미디어 환경을 위해 국회가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서울=김영목기자

이재명 확정, 국민의힘 5월 3일 결론...본격 선거전

D-35 6.3 대선

이재명 후보 공식활동 돌입
후보 등록 5월 10~11일
12일부터 선거운동 시작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전 당대표를 제21대 대선후보로 선출했고, 국민의힘이 오는 5월 3일 최종 후보를 선출할 예정인 가운데, 제21대 대통령을 선출하는 대통령 선거일이 28일 현재 기준으

로 대선 35일 전으로 다가왔다. 민주당은 지난 27일 대선 후보 권역별 경선 최종 집계 결과 이재명 후보가 89.77%의 압도적인 득표율로 선출됐다고 밝혔다. 이재명 후보는 대선 후보 선출 다음날인 28일 당 최고위원회의에 출석하고 함께 국립현충원 참배를 하는 등 대선 후보로서의 공식 활동에 들어갔다. 국민의힘은 전날에 이어 이날까지 이틀간 1차 경선을 통과한 김문수, 안철수, 한동훈, 홍준표 후보를 대상으로 2차 경선을 실시해 과반 득표자가 없을

경우 상위 1~2위를 대상으로 3차 경선을 실시, 오는 5월 3일 최종 후보를 발표할 예정이다. 중앙선관위는 제21대통령 선거 일정에 따라 오는 5월 6일부터 10일까지 선거인 명부를 작성하고, 10일부터 11일까지 후보자 등록을 받을 예정이다. 선관위는 12일부터 대선 전날인 6월 2일까지 본격적인 선거운동을 실시하고, 오는 17일부터는 선거벽보를 첨부할 예정이다. 또 24일까지는 대선에 따른 투표안내물을 발송하고, 29일부터 30일까지 이

틀간 사전 투표를 실시키로 했다. 한편, 대법원은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과 관련, 대선전에 선고를 하기 위한 속행을 하고 있어, 어떤 결과가 나올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대법원이 2심을 그대로 인정하는 무죄를 확정하거나,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 또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파기후 재판(대법원이 직접판결)을 할 수 있다는 여러 분석이 나오고 있으나 현재로서는 어느 것도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다. /서울=김영목 기자

전북도, ‘청년마을 만들기’ 5곳 선정

전북자치도가 청년 지역 정착을 이끄는 ‘2025년 전북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 대상지로 익산, 감제, 부안, 정읍, 고창 등 5개 청년단체를 최종 선정했다. 청년 주도로 지역 특색을 살린 마을을 조성하고, 청년이 지역의 일원으로 자리 잡도록 도와 전북형 대표 지방소멸 위기 대응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전북자치도는 지난 2022년부터 이 사업을 시작해 지난해까지 총 20개 청년단체를 육성했으며, 올해는 도내 13

개 팀 중 서류심사와 현장실사, 발표평가 거쳐 △익산시 익산청년연대, △감제시 쌀도시의 청년연주소, △부안군 다잇다임, △정읍시 샘샘 유한회사, △고창군 원더청년 최종 5개소가 선정됐다. 선정된 단체는 각 1억 원의 예산을 지원받아 다양한 콘텐츠와 프로그램을 운영해 공동체 기반 지속 가능한 마을을 만들어갈 예정이다. /김영태 기자

Great Iksan

2025

익산 서동축제

2025년 5월 3일 토 - 5월 6일 화

개막식&퍼레이드 2025년 5월 3일 토 중앙체육공원

메인행사 2025년 5월 4일 일 - 5월 6일 화 익산서동공원 일원

주최: 익산시, 익산문화관광재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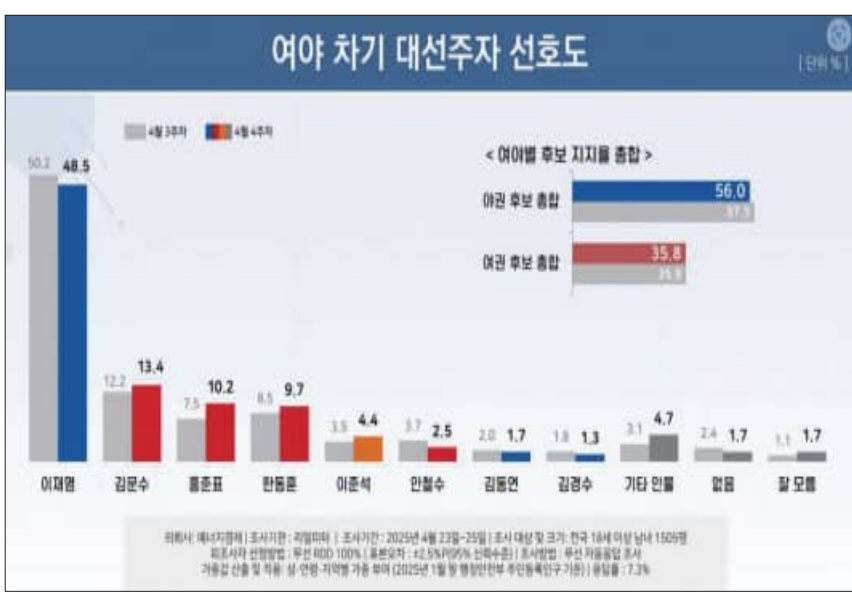
후보: 전북특별자치도, 전북은행, NH농협은행, 원광새마을금고

이재명, 48.5% 압도적1위 가상 대결도 선두

민주당46.8%국민의힘34.6%
5주 연속오차범위밖우세

28일 리얼미터에 따르면 에너지경제 신문 의뢰로 지난 23~25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505명을 대상으로 차기 대선 주자 선호도를 조사한 결과 이재명 후보는 전주보다 1.7%p 하락했다.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경선 후보는 13.4%, 홍준표 후보는 10.2%, 한동훈 후보는 9.7%로 세 후보 모두 오차범위 내에서 순위 다툼을 했다. 이어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4.4%, 국민의힘 안철수 후보는 2.5%로 집계됐다. 리얼미터는 “이재명 후보는 선거법 위반 사건 판결 불확실성 우려로 지지율이 다소 하락 50% 선 아래로 내려갔다”면서도 “여전히 전체 후보 중 압도적 1위를 유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대선후보 경선 중인 김문수(1.2%p ↑), 홍준표(2.7%p ↑), 한동훈(1.2%p ↑) 후보는 전주 대비 약간 상승했다. 이는 2차 경선 진출자 발표 후 보수층이 결집한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 및 무당층에서는 이재명 전 대표가 80.2%로 압도적인

우세를 보였고, 국민의힘 지지층과 무당층에서는 김문수 29.2%, 홍준표 21.4%, 한동훈 20.9%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무당층에서는 이재명 후보 18.5%, 김문수 후보 13.4%, 한동훈 후보 13.1%, 홍준표 후보 9.0%, 안철수 후보 5.7%, 이준석 후보 4.0% 순이었다. 무당층에서는 ‘기타 인물’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11.5%를 기록했다. 경선이 진행중인 국민의힘 후보 적합도 집계 결과, 김문수 전 장관이 1.1%p 상승한 19.7%, 한동훈 전 대표가 2.5%p 상승한 17.4%로 선두에서 오차범위 내 구도를 보였고, 이어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2.7%p 상승한 15.1%, 안철수 의원이 2.2%p 상승한 11.8%로 조사됐다. 이재명 후보는 국민의힘 후보, 이준석 후보와 맞붙는 3자 가상대결 조사에서도 50%가 넘는 지지율로 여타 주자를 오차범위 밖에서 모두 앞섰다. 이재명 후보는 3자 가상대결에서 50.7~51.9%로 국민의힘 후보군과 27.6~41.4%p 차이를 보였다. 다만 직전 조사에서 54%대 지지율을 기록한 것과 비교하면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후보군 중에서는 김문수 후보가 23.3%로 3자 가상대결에서 가장



높은 지지율을 확보했다. 이재명 후보와 의 격차는 27.6%p였다. 홍준표 후보는 21.9%(격차 29.6%p), 한동훈 후보는 16.8%(33.9%p), 안철수 후보는 10.5%(41.4p)로 뒤를 이었다. 이준석 후보 지지율은 6.6~7.8%로 집계됐다. 국민의힘 주자를 홍준표 후보와 안철수 후보로 설정한 3자 가상대결에서는 각각 6.6%를 기록했고, 한동훈 후보가 국민의힘 후보라고 가정했을 때는 7.8%였다.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 46.8%,

<자료=리얼미터>

/서울=김영목 기자

강동화 도의원, 기록원 설치 근거 마련

기록물 생산량 증가
공간 부족 관리 소홀 착안



강동화 도의원

전북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강동화 의원(전주8)은 ‘전북특별자치도 교육청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고, 지난 24일 교육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되었다고 밝혔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기록물 생산량 증가로 문서로 공간 부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일부 학교의 기록물 관리 소홀 등으로 기록물 관리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것에 착안하여 발의했다. 강 의원은 위와 같은 문제의식 속에서 기록물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영구보존 및 관리를 위하여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에 따라 기록원을 설치할 수 있는 법

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일부 개정조례안을 발의한 것이다. 이에 강 의원은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을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기관에서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접수한 문서·전자 문서 등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자료와 행정박물이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을 것”이라고 일부개정조례안의 의미를 부여했다. 한편,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5월 7일에 열리는 제41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공포 후 곧바로 시행될 예정이다. /정재근 기자



최병관 전북도 행정부지사 퇴임

실무경험 토대 행정 전문가
31년 공직생활 마무리

특히 그는 고향 전북에서 공직의 첫걸음을 내디뎠고, 마지막 발걸음도 고향에서 떼며 공직 여정을 의미 있게 마쳤다. 이날 김광영 도지사는 공로패와 캐리커처 액자를 전달하며 “전북의 미래를 설계하는 데 있어 큰 축이 됐다”며 “하계올림픽 유치 기반 마련은 물론, 도정 전반에 따뜻한 리더십을 남겼다”고 감사를 전했다. 이어 송상재 전북특별자치도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은 전 직원의 뜻을 모은 감사패를 전달하며, “늘 열린 귀와 따뜻한 마음으로 직원들과 함께했다. 그 정신을 잊지 않겠다”고 전했다. 퇴임식 이후에는 1층 현관에서 도청 전 직원들이 함께한 가운데, 환송과 감사의 시간이 이어졌다. 직원들은 “늘 따뜻하게 공감해 준 부드러운 리더십을 잊지 않겠다”고 입을 모았다. 최병관 부지사는 “전북에서의 마지막 공직 생활은 제게 특별하고 감사한 시간이었다”며 “잠시 떠나지만, 새로운 길에서도 전북을 항상 응원하겠다”고 소회를 밝혔다. /김영태 기자

전북자치도의회 경제산업건설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김대중 의원 새만금 산단 공실률 높아...320억 규모 신규 건립 시기상조

나인권 의원 청년카페 사업 예산 현저히 줄어 사업 추진 의지 의문

이병도 의원 전통시장 대표축제 지원 관련 실효성 있는 예산 편성 강조

전북자치도의회 경제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대중)는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이틀차 일정으로 기업유치지원실 소관 예산안을 심의했다. 기업유치지원실 소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789억 5,824만원 대비 131억 9,218만원(4.73%)이 증액된 2,921억 5,042만원으로 편성됐다. 위원회는 이번 추경이 긴급한 현안 대응과 민생경제 안정을 목표로 편성된 만큼, 예산의 편성 방향과 정책적 효과, 사업의 실행 가능성에 주목해 심의를 진행했다.

△김대중 의원 (익산1)은 새만금 산단 기업성장센터 건립 사업과 관련해, 현재 산단 내 유사 시설의 공실률이 높은 상황에서 320억 원 규모의 신규 건립은 시기상조라며, 사업 타당성과 예산 집행의 적정성에 대한 재검토를 요청했다.

△김동구 의원 (군산2)은 기업유치지원실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미흡하고 보여주기식이라고 지적하며,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만큼, 현장의 분위기를 면밀히 파악해 보다 적극적인 예산 편성과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김이재 의원 (전주4)은 전통시장 안전관리패키지 지원사업의 예산 편성 사유가 전기·소방·가스 시설물 개선인 점과 관련해, 해당 내용이 소방본부의 업무와 중복되지 않는지 질의하며, 사업 간 중복이 없도록 꼼꼼히 확인해 줄 것을 요청했다.

△나인권 의원 (김제1)은 청년성장프로젝트 중 청년카페 운영 사업과 관련해, 2024년에 비해 예산이 현저히 줄어든 점을 언급하며, 이 사업을 추진할 의지가 없는 거 아닌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서난이 의원 (전주9)은 새만금 산단 기업성장센터 건립 사업과 관련해 구축 단계까지만 국비가 지원되고 운영은 지자체가 맡는 점을 지적하며, 모든 운영비를 지자체가 부담하는 상황인 만큼 국비를 받아오는 사업일지라도 보다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병도 의원 (전주1)은 전통시장 대표축제 지원과 관련해 전수조사 및 지원방안 검토가 예산에 반영됐는지 확인하며, 실효성 있는 지원 예산 편성을 강조했다. 또한, 전통시장 안전관리패키지 지원사업이 전기·소방·가스 등 종합적 시설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당부했다.

△임종명 의원 (남원2)은 전통시장 안전관리패키지 지원사업의 전기·소방·가스 시설물 개선과 관련해 전통시장이 화재에 매우 취약한 만큼 다음 예산 편성 시에는 도비 투자를 확대하고,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통합적으로 관리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정재근 기자

미세먼지 예방 하고 안전한 봄 지내요

1

손씻기

2

물 많이 마시기

3

외출 시 마스크 착용

4

실내공기 관리

김제 광활 햇감자 농가 3중고에 ‘울상’

광활 감자, 하나로마트 판촉
‘해풍 감자’ 맛·품질 인기
이상기후로 출하량 감소
시세 하락, 농가 막막

전국 햇감자 최대 재배지인 전북자치도 김제 광활·진봉면지역 생산농가들이 올해 햇감자를 본격 출하하고 있는 가운데 전년 대비 수확량이 1/3가량 감소한데다, 가락동시장 가격도 형성되지 않고, 생산원가에도 못미쳐 3중고로 울상이다.

광활 햇감자는 간척지에서 생산되는 감자로서 그 맛과 품질이 매우 뛰어나 전 국민들이 선호하는 인기 식재료다.

전북특별자치도(도지사 김관영)-전북농협(본부장 이정환)은 지난 24일부터 오는 30일까지 농협 하나로마트(수도권



전북자치도 전북농협은 지난 24일부터 오는 30일까지 농협 하나로마트 등을 통해 김제 광활 하우스 햇감자 판촉행사를 진행한다. <사진=전북농협>

대형유통센터 및 전주유통센터) 등을 통해서 김제광활 하우스 햇감자 판촉 행사를 진행한다.

김제 광활에서 생산되는 감자는 간척지 토양에서 재배되어 풍부한 미네랄을 함유하고 있고, 바다에서 맛따뜨리는 해

풍이 천혜의 조건으로 작용하여 육질이 단단하며 당도가 높아 ‘밤감자’로 불리기도 한다.

또 맛이 좋고 영양도 많아 피부미용과 다이어트에도 크게 효능이 있어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좋은 식품으로 알려져 있다.

이처럼 광활 햇감자의 생산 저하 이유로는 지난 겨울철 이상기온 현상으로 작황이 좋지 않아 수확량이 감소했으며 지난해 비해 1/3수준에 불과해 농가마다 경영난이 예상되고 있다.

앞으로 10일 후 전국적으로 봄 감자 생산이 출하되면 시세는 지금보다 하락할 것으로 전망돼 광활면 감자 작목반들의 한숨은 더욱 커졌다.

광활 햇감자 판매를 담당하는 광활농협도 이미 계약 물량 공급에 큰 차질이 예상되면서 전 직원을 동원해 야간작업도 진행중이다. /김영태 기자

현대차 전주공장 ‘YES-H키즈카페’ 인기 폭발

완주 소양서 이틀간 이벤트
500여명 가족 참여 대성황
일렉킹·엑션퀸 캐릭터 인기

현대자동차 전주공장(공장장 장현구)이 저출산 문제 극복 노력의 일환으로 기획한 ‘YES-H키즈카페’ 이벤트 행사가 참가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28일 현대차 전주공장에 따르면 전북자치도 완주군 소양면 아이랑 카페에서 26~27일 이틀 간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아이를 동반한 부모를 대상으로 열린 YES-H키즈카페에는 총 120가족 500여 명이 참여해 대성황을 이뤘다.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이 저출산 문제 극복 노력의 일환으로 기획한 ‘YES-H키즈카페’ 이벤트 행사가 참가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사진=현대자동차>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은 이날 YES-H키즈카페 참가자들에게 2~4인

가족 기준 각각 3~5만원의 음료와 디저트를 무료로 제공하고, 아이들과 부

모가 함께 즐길 수 있는 보드게임과 그림그리기 도구 등을 제공해 즐거운 하루를 만끽할 수 있도록 도왔다.

또 이 회사 생산모델인 수소전기버스 일렉시티와 대형트럭 엑시언트를 모델로 특별제작한 일렉킹, 엑션퀸 캐릭터인형을 활용해 아이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도 했다.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은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해 지난해에도 완주군 임산부 2,500명에게 특별제작한 육아용품 선물세트를 선물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오고 있는 중이며, 앞으로도 다양한 이벤트를 기획해 아이 키우며 살기 좋은 세상 만들기에 앞장서 나갈 방침이다. /김영태 기자

농촌진흥청, 유전체 유전변이 16작물 정보 공개

슈퍼컴퓨터로 4주간 분석
육종 연구 시간·비용 절감

농촌진흥청(청장 김재환)은 슈퍼컴퓨팅센터에서 분석한 배추 등 16작물 벼, 참외(멜론), 유채, 포도, 토마토, 배추, 참깨, 수박, 상추, 동양배, 오이, 무, 사과, 오렌지, 귤, 딸기의 유전변이 정보를 일 반에 공개, 국내 디지털 육종 연구를 지원한다.

유전변이 정보는 전체 유전체 정보로부터 핵심 정보만을 뽑아 정리한 것으

로 전체 정보보다 크기가 작고 정제돼 있어 분자표지 개발과 디지털 육종에 활용된다.

이전에는 유전변이 정보 분석에 많은 시간과 인력, 컴퓨터자원이 필요해 민간에서는 접근이 어려웠다.

농촌진흥청은 슈퍼컴퓨팅센터는 종자산업진흥센터로부터 요청받은 16작물 1만 382자원의 유전체 정보 수집과 분석을 수행해 얻은 유전변이 정보를 공개하기로 했다.

국내외에 공개된 유전체 서열 정보를 3개월에 걸쳐 수집하고, 농촌진흥청 초

고성능컴퓨터(NABIS) 2호기를 이용해 단 4주 만에 분석을 마쳤다.

일반 서버로는 5년 이상 걸릴 분석 기간을 단축해 국가 디지털 육종 기술 활용이 가속화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유전변이 정보는 슈퍼컴퓨팅센터(nabic.rda.go.kr)에서 올해 상반기 중 공개된다. 이와 함께 유전변이 정보 분석에 사용한 전체 유전체 정보도 제공할 예정이다.

농촌진흥청 농업생명자원부 김남정 부장은 “민간에서 확보하기 어려운 유전변이 정보를 단시간에 분석, 공개해

종자 기업 등의 디지털 접근성을 확대했다”며 “이번 정보 공개로 연구자들은 유전체 분석에 쓰이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고, 대량 확보한 양질의 유전형 정보를 농생명 기초 연구와 디지털 육종 등에 활용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농촌진흥청 슈퍼컴퓨팅센터는 종자 기업을 포함한 관련 산학연에 초고성능 컴퓨터(NABIS) 2호기 공동 활용과 초고속 빅데이터 분석을 지원해 농업과 생명·보건 분야에 초고성능컴퓨팅 활용 기반을 제공하고 있다. /김영태 기자

다인바이오(주), 캐나다 식품시장 진출 기반 마련

바이오진흥원 입주기업
캐나다 NHP 허가 획득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이하 바이오진흥원, 원장 이은미)은 우수 기술 개발과 사업화 지원체계 구축을 통해 진흥원 입주기업의 글로벌 진출 기반을 마련했다.

바이오진흥원은 창업보육센터 중심의 입주기업 성장에 필요한 사업화지원과 바이오식품산업화센터에서 진행하는 맞춤형 생산지원 및 상품화 기술지원, 첨단바이오식품센터의 R&D지원 및 글로벌화 지원으로 전주기 보육체계를 구축했다.

이를 통해 바이오식품산업화센터 입주기업인 다인바이오(주)는 해외 인증을 획득하는 성과를 얻었다.

다인바이오(주)(이제현 대표)는 지난 2019년 1월 바이오진흥원 바이오식품산업화센터에 입주한 헬스케어 신소재 개발 전문 바이오 벤처기업으로, 식품용 원료 ‘Dyne-NAO®’(네오아가로올리고당)를 캐나다 보건부의 천연건강식품(NHP)

으로 등록했다. 캐나다의 NHP 등록 제도는 비타민, 미네랄, 프로바이오틱스 등 건강기능식품이 안전하게 소비될 수 있도록 품질을 관리하는 제도로, 캐나다에서 건강기능식품을 유통·판매하기 위해서는 해당 원료가 NHP 등록을 통해 품목번호(NPN)을 부여받아야 한다.

다인바이오(주)가 개발한 식품원료 Dyne-NAO®는 지난 2월 캐나다 정부로부터 신규식품원료(Novel Food) 승인을 받은 데 이어 이번 NHP 등록을 통해, 변비 개선과 건강 유지를 위한 식이섬유 공급원으로 활용될 수 있게 됐다.

바이오진흥원은 입주기업의 기술사업화를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을 아끼아가지 않고 있다.

다인바이오(주)는 진흥원의 발효조 및 후가공 설비를 활용해 효소 ‘메타아가라아제’와 기능성 원료 ‘Healthy NAO(헬시나오)’ 등을 개발했다. /김영태 기자

전북지방우정청, 어린이날맞이 ‘소원우체통’

소외계층 어린이 공익사업
‘편지·우체통’ 매개 선물 전달

전북지방우정청(청장 최동원)은 오는 어린이날(5월5일) 맞이 도내 어린이들의 ‘소원우체통’ 행사를 계획했다.

이번 ‘소원우체통’은 ‘어린이날을 앞두고’ 어린이들의 소원을 들어주는 행사로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소원우체통’ 행사는 ‘편지’와 ‘우체통’을 매개체로, 지역사회 소외계층 어린이들 대상으로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하기위한 우체국 공익사업이다.

이 행사는 어린이들이 받고 싶은 선물을 편지에 적어 양육시설에 설치된 ‘소원우체통’에 넣으면, 어린이날 직전에 전달된다.

전북지방우정청은 지난 25일 시은육아원을 방문해 소원편지를 보낸 아동

34명에게 소원선물(300만원 상당)을 전달하는 행사를 가졌다.

소원선물은 평소 어린이들에게 인기 많은 ‘의류, 신발, 가방’ 등을 포함시켰다.

최동원 전북지방우정청장은 “우리의 작은 정성이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 때로는 작은 기적이 됐으면 좋겠다”며 “앞으로 우체국 네트워크를 활용해 지역사회 내의 우체국 공적 역할 실현을 위해 더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북지방우정청 및 도내 16개 시·군 우체국 지원들로 구성된 ‘우체국 행복나눔봉사단’은 지난 해 소외계층 약 1000여명 대상 후원물품 지원 등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우정청은 올해도 다양한 지역밀착형 사회 공헌 활동을 지속적이고 전개할 전망이다. /김영태 기자

전북농협, 2025년 축산 경제사업 추진전략 회의

전북농협(본부장 이정환)은 ‘2025년 전북축협 경제사업 추진 회의’를 28일 개최했다.

전북축협 경제사업 추진 회의는 축산인의 가치 제고·조직역량 강화를 통한 수취가격 제고·경영비 절감·지속가능 경영·생산성 향상을 위해 관내 축협 지도·경제 상무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4일 전주김제완주축협 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날 회의를 통해 한우뿌리농가 육성과 컨설팅·교육 강화로 축산업 성장 주도, 스마트 가축시장 및 조사료 유통망 대로 농가 실의 지원, 가축질병 차단 방역 및 전북한우경진대회로 농가 생산성 증대, 친환경·정정축산 및 나눔축산으

로 사랑받는 축산업 육성 등 2025년 전북농협 축산업단 주요업무 추진사항 등이 설명됐다.

또 축협별 경제사업 주요 추진내용 공유 등 지속가능 축산업을 위한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됐다.

이정환 본부장은 “지난해 축산업은 생산비 증가, 가축질병, 소비둔화 등에 어려운 시기를 보냈다”며 “올해 역시 대내외적인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축산농가 소득안정과 축산업의 든든한 버팀목으로써 전북축협이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임직원들의 노력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전주 JB문화공간, 은희경 작가 초청 북토크쇼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행장 백종일)이 후원하는 전주 JB문화공간에서는 지난 26일 은희경 작가를 초청해 ‘북토크쇼:나의 인생 작가’를 개최했다.

은희경 작가는 고창 출신으로 1995년 동아일보 신춘문예로 등단한 이후 이상문학상, 동인문학상 등 다수의 문학상을 수상했다.

또 그는 ‘새의 선물’을 비롯해 수많은 작품을 통해 한국문학을 대표하는 작가로 자리매김했다.

이날 ‘문학이 우리에게 주는 것들’이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은 작가는 이자리에서 데뷔 초창기부터 작품을 집필하고 느꼈던 고민과 성찰, 영감과 깨달음 등을 이야기하며 ‘작

품을 통해 우리는 스스로에게 행복이 무엇인지 질문을 던지게 되고 인간의 다양성을 이해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 날 함께 한 80여명의 독자들은 “은희경 작가 특유의 냉정하면서도 따뜻한 시선을 직접 느낄 수 있었던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한 마디 한 마디가 깊은 울림과 깨달음을 주었다” 등의 후기를 남겼다.

이번 북토크쇼를 시작으로 오는 7월 박준 시인, 9월 정지아 소설가, 11월 김애란 소설가가 전주 JB문화공간을 찾아 올 예정이다. 무료 참여 신청은 JB문화공간 통합 홈페이지에서 간단한 절차를 거쳐 회원가입 후 신청할 수 있다. /김영태 기자

최신 투시조영장비 교체
소화기 치료 전문성 강화

전북대학교병원(병원장 양종철)이 소화기질환 진단과 치료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ERCP(내시경 역행 담취관 조영술)장비를 최신 장비로 교체하고 전용 검사실도 새로 갖췄다고 28일 밝혔다.

ERCP는 담취관 질환의 진단과 치료에 가장 중요한 기술로 꼽힌다.

전북대병원 소화기내과에 교체 도입된 ERCP 장비는 내시경과 X-레이를 이용해 취관 및 담관을 정밀하게 검사하고 치료할 수 있는 최첨단 의료장비로, 방사선 피폭을 최소화하면서도 선명하고 빠른 영상 제공이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이를 통해 환자에 대한 안전성을 높이고, 결석, 협착, 종양 등 다양한 취관도



전북대병원이 ERCP(내시경 역행 담취관 조영술)장비를 최신 장비로 교체하고 전용 검사실도 새로 갖췄다고 28일 밝혔다. <사진=전북대병원>

질환의 정확한 진단 및 신속한 치료가 가능하게 됐다.

전북대병원 소화기내과는 최첨단 ERCP 장비 도입과 함께 전용 검사실을

마련하여 내시경적 담도 스텐트 삽입술, 담석 제거술, 취관염 및 담도암 진단 등 고난도 기술을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시행할 수 있게 됐다. /김영태 기자

늘봄학교 담당자들 과로?…도교육청 외면?

전북학비연대 “전국 최하위 근무조건…업무 과중 대책
도교육청 “타시도 비해 업무 부담 적어…업무효율화 검토”

전북 늘봄학교 담당자들 근무조건이 전국 최하위로 업무가 과중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북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28일 전북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북 지역 늘봄실무사와 돌봄전담사의 근무 조건이 전국에서 가장 열악하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학비연대는 “전국 타 시도의 늘봄실무사는 근무시간이 8시간임에도 업무 과중으로 고통을 호소하는데 6시간만 인정해 주는 전북 늘봄실무사는 주말과 휴일에도 업무에 치이고 있다”며 “늘봄행 정업무와 관련이 없어도 늘봄학교의 ‘늘’ 자만 들어가도 늘봄실무사에게 모든 업무를 전가하는 상황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늘봄 업무도 과부하인데 3~4개의 학교를 순회하는 늘봄지원실무사는 조합의 자체 설문조사 결과에서 ‘죽고 싶다’는 응답 결과도 나오고 못 견디고 그만두는 실무사도 많이 생기고 있다”

며 “전북교육청은 대책을 내놓지 않고, 중장기적인 검토를 하겠다는 안일한 소리만 하고 있어 분노만 사고 있다”고 말했다.

돌봄전담사에 대해서는 “전북만 유일하게 방학 중에 일을 시키지 않고 임금도 주지 않는 비상시 직종으로 분류돼 있다”며 “지난해 근무시간 확대를 논의 하자고 해놓고 지금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단체는 “이를 해결하고자 서거전 전북 교육감에게 면담을 요청했지만 거부당했다”며 “전북교육청이 시급히 대책을 마련해 정상화할 때까지 투쟁을 이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전북학비연대는 이날 △전북 늘봄학교 근무시간 확대 운영 △돌봄전담사 8시간 상시근무로 개선 △늘봄실무사 근무시간 8시간 확대 △늘봄실무사 행정 업무 이외의 업무 분장 중단 △순회전담사 업무 과중 대책 마련 △늘봄학교



전북 늘봄학교 담당자들 근무조건이 전국 최하위로 업무가 과중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사진=전북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안전대책 마련 △늘봄학교 정책 전면 수정 등으로 요구했다.

이에 전북교육청은 “전북형 늘봄학교 운영시간은 학교 안에서 최대 오후 6시까지이고, 학교 밖에서 최대 오후 8시까지”라며 “타시도가 학교 안에서 오후 8시까지 운영하는 것에 비해 업무 부담이 적은 상황”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전북 늘봄실무사는 늘봄 행정 업무 외의 업무 분장 중단 △순회전담사 업무 과중 대책 마련 △늘봄학교

우가 많다”며 “돌봄전담사의 경우 타시도에서도 4시간, 5시간, 6시간 근무자가 혼재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도교육청은 “전북형 늘봄학교 전담 운영 체제 구축으로 효율적 업무 추진에 노력을 강화하겠다”며 “늘봄실무사인력 운영은 시도 정책 방향 및 여건을 반영해 시도별 차이가 있고 학생 수와 학교 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한 중장기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성민 기자

전북대, 중국 연태에 제3호 JBNU 국제센터 개소

中 동부 지역 유학생 유치 목표

전북대학교(총장 양오봉)가 해외 유학생 유치 확대를 통한 글로벌 허브대학 도약을 위해 중국 산둥성 연태에 ‘제3호 JBNU국제센터’를 개소했다.

전북대는 지난 23일부터 25일까지 박천웅 전북대 국제협력부처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중국 산둥성 연태를 방문해 현지 교육기관과 협력을 논의하고, 연태대학교 국제교류원에 ‘JBNU국제센터’ 현판 부착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소한 연태 JBNU국제센터는 지난해 모로코와 태국에 이어 전북대가 해외에 세운 세 번째 국제 유학생 유치 거점이다. 앞으로 중국 동부 지역 외

국인 유학생 유치 확대를 목표로 현지 맞춤형 입학상담과 맞춤형 교육, 문화교류 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전북대 박천웅 국제협력부처장 등 관계자들은 이번 방문기간 동안 연태대학교 국제교류원을 비롯해 현지 협력기관들과 구체적인 유학생 유치 방안을 논의했으며, 한국유학반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전북대의 교육과정과 장학제도, 다양한 유학생 지원 프로그램 등을 소개하는 입학설명회도 개최했다.

특히 현장에서 진행된 실시간 질의응답과 진학 상담을 통해 현지 학생들의 한국 유학에 대한 높은 관심과 입학 의지를 확인해 실질적인 유학생 유치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양오봉 총장은 “연태 JBNU국제센터는 중국 내에서 전북대의 국제화 플랫폼 역할을 수행하는 동시에, 유학생 유

치와 현지 교류를 연결하는 핵심 전략 거점”이라며 “JBNU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지속적으로 확장하겠다”고 밝혔다. /최성민 기자

제4회 전주국제그림책도서전 개최

국내의 그림책 작가와 출판사, 독자와 전문가가 함께하는 대한민국 대표 그림책 문화축제인 ‘제4회 전주국제그림책도서전’이 다음달 29부터 전주에서 열린다.

전주시는 오는 5월 29일부터 6월 1일

까지 팔복예술공장과 안산도서관에서 ‘그림책, 마법의 공간(Picturebook, the Space of Magic)’이라는 주제로 제4회 전주국제그림책도서전(전시는 6월29일 까지)을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올해 그림책도서전에는 △국내의 작



가들의 그림책 원화전 △그림책 콘퍼런스 △원화 작가 강연 △아트마켓·북마켓 △어린이 체험 프로그램 등 다양한 콘텐츠가 소개된다. 이 중 콘퍼선스와 강연, 체험, 포트폴리오 리뷰 등 주요 프로그램은 5월 1일 오전 10시부터 도서전 공식 누리집을 통해 사전 접수할 수 있다. /정재근 기자

우석대 군사학과 제복착복 및 승급식

선발시험 전원 합격 성과 계승

우석대학교(총장 박노준) 군사학과가 28일 전주캠퍼스 문화관 2층 아트홀에서 ‘2025학년도 제복 착복 및 승급식’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학과 구성원의 단합을 도모하고, 매년 이어져 온 장교 선발시험 전원 합격의 성과를 계승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박노준 총장과 군사학과 교수진, 학부보 등 100명이 참석해 11기 신입생의 제복 착복과 10기의 승급을 축하했다. /최성민 기자

이날 11기 조예관 학생 외 41명은 학내 규율을 준수하고 품위를 유지하면서 미래 군 장교로서의 역량을 키워나갈 것을 다짐했다. 또한 10기 박시연 학생 외 41명이 승급했다.

박노준 총장은 “전투복을 입고 훈련하며 인내와 희생을 감내하는 쉽지 않은 길을 선택했지만, 장교의 길은 그만큼 명예롭다는 사실을 항상 가슴에 새기길 바란다”며 “앞으로 지성과 소양을 겸비한 예비 장교로 성장해 대학과 학과의 명예를 드높이길 기대한다”고 격려했다.

전북 농촌유학, 수도권 학생·학부모 큰 호응

수원 컨벤션센터서 전북 농촌 홍보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지난 25일부터 27일까지 수원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Y-FARM EXPO 2025’ 박람회에 참가해 전북 농촌유학의 우수성과 특색을 홍보했다.

연합뉴스와 농협이 공동 주최한 이 박람회는 귀농·귀촌, 농촌 일자리 및 교육 정보를 한자리에서 접할 수 있는 행사다.

전북교육청은 박람회장에 농촌유학 상담(홍보) 부스를 설치해 전북 농촌유학의 운영 방식, 참여 절차, 유학생 지원 제도, 특색 있는 생태체험 프로그램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했다.

특히 농촌유학 참여 희망 학부모와 학생을 대상으로 1:1 맞춤형 상담을 병행해 큰 호응을 얻었다. /최성민 기자

전북교육청은 도내 지자체와 협력해 거주시설을 확충하고 특색 있는 교육과정을 다양화하는 등 도시·농촌 간 교육격차 해소와 지역 균형 발전에 보탬이 되는 교육 생태계를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전북 농촌유학은 현재 도내 28개 학교에서 200명 이상의 유학생이 참여한 가운데 △가족제류형 △유학센터형 △홈스테이형 등 형태로 운영된다.

임경진 교육협력과장은 “이번 박람회 참여는 수도권 학부모들에게 전북 농촌유학의 강점을 직접 전달할 수 있는 매우 효과적인 기회였다”며 “전북 농촌유학은 생태 감수성, 공동체 정신, 전인적 성장을 돕는 미래형 교육 모델로, 앞으로도 다양한 방식으로 홍보를 확대하고 정착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기전대, ‘JOB DAY’ 취업박람회 개최

전주기전대학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는 29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전주기전대학 체육관에서 재학생 및 졸업생, 지역 청년들을 대상으로 일자리와 지역 기업체에게 우수 인재를 확보해 취업난 해소를 위한 ‘JOB DAY’ 취업박람회를 개최한다.

이번 취업박람회에는 산업체 채용정보 설명회, 상담체험부스, 청년고용정책 홍보부스, 실천대비체험 프로그램 부스, 이벤트부스 등을 운영할 예정이다.

이번 행사에 참여한 산업체는 에너지 11, 데림씨엔씨, 알에프세미, 데데이 등 인사담당자가 참여해 채용설명회가 이뤄지며 지역기관 전북특별자치도일자리

센터, 전주고용복지플러스센터가 참여할 예정이다.

또한 청년들의 흥미제고를 위해 퍼스널컬러, 캐리커처, 향수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무료로 제공하고 스탬프, 휴먼제이언시, 국제케어센터 등 여러 기관과 협업해 채용 및 청년고용정책에 설명회가 진행된다.

조덕현 전주기전대학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장은 “재학생 및 졸업생과 지역청년들에게 진로설정 및 취업준비에 대한 동기부여를 목적으로 개최한다”며 “취업박람회가 학생들의 취업 준비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최성민 기자

조리 전 30초 이상
손씻기

조리음식은 중심부까지
완전히 익히기!

실온이나 자동차
트렁크에 보관 금지

봄나들이 도시락 준비 주의사항

◆도시락 준비부터 보관, 운반 및 섭취까지!
음식물을 상온에 두거나, 야외활동으로 장기간 외부온도에 노출되는등
음식관리 부주의 조심!

군산시, 초등학교 대상 생생직업체험교실 참여자 모집

군산시가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장래 진로 탐색 및 미래 설계 기반을 다지는 것에 도움을 주고자 '생생직업체험교실' 참여자를 모집한다.

'생생직업체험교실'은 군산시육아종합지원센터 2층 부모공동교육장에서 진행된다. 교육 일시는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11시 10분 △오후 1시 △2시 10분 총 4회씩 운영된다. 회차 당 교육생은 초등학생 12명이며, 체험 비용은 무료다.

이번 프로그램에는 △소콜라티에(5월 10일) △주얼리 디자이너(5월 31일) △해양생태연구원(6월 7일) △유튜브 크리에이터(6월 21일) 과정이 진행된다.

오는 30일 10시부터 공유누리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면 되며,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 누리집을 참고하거나 군산시 아동정책과(454-4164)로 문의하면 된다.

/군산=지송길 기자

정읍시, 트래블스냅 전문가와 '인생사진 기차여행'

정읍시가 수도권 관광객을 대상으로 트래블스냅 전문가와 함께하는 '인생사진 기차여행'을 새롭게 선보인다.

이번에 출시된 '정읍 인생사진 트래블스냅&미식 하루 기차여행(이하 인생사진 기차여행)'은 시와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전북지역 전담 여행사 해빌(대표 오영진)이 공동으로 기획한 관광상품이다.

일정은 오전 8시 20분에 서울 용산역에서 KTX를 타고 정읍으로 약 1시간 30분 이동해 정읍역에서 연계차량을 이용해 내장산으로 이동한다. 참가자들은 드라마 '옥씨 부인전' 촬영지로 유명한 내장산 우화정을 배경으로 트래블스냅 전문 강사와 함께 대표 관광지에서 사진 촬영을 배우고 실습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트래블스냅'의 의미부터 휴대폰 사진 기능 사용 방법, 사진을 잘 찍는 요령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

상품 가격은 성인 기준 14만 9000원으로, 왕복 KTX 요금과 현지 연계 차량, 중식, 트래블스냅 강의로와 체험비, 각종 입장료 등이 모두 포함돼 있다. 운영은 오는 5월 3일부터 매주 주말(토·일요일)에 정기적으로 진행되며, 예약은 해빌 여행사 홈페이지 또는 전화로 가능하다.

/정읍=김정인 기자



익산예술의전당, 5월 가정의 달 '풍성한 공연'

익산예술의전당이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클래식부터 뮤지컬, 연극까지 다채로운 기획공연을 선보인다.

28일 익산예술의전당에 따르면 디즈니 인 콘서트 스타카치 파르티트 with 박해상 △뮤지컬 청춘연가 △연극 바닷마을 다이어리가 차례로 무대에 오른다.

5월 3일은 매년 뜨거운 반응을 이끌어낸 '디즈니 인 콘서트'가 '비온다 더 매직(Beyond the Magic)'이라는 제목으로 한층 업그레이드된 무대를 선보인다.

디즈니 인 콘서트는 대형 스크린에서 펼쳐지는 애니메이션과 국내 최정상급 뮤지컬 배우 4인의 생생한 공연, 그리고 디토 오케스트라의 완벽한 하모니가 어우러진 디즈니 공식 라이선스 공연이다.

디즈니 인 콘서트는 48개월 이상, 스타카치 파르티트 with 박해상 △뮤지컬 청춘연가 △연극 바닷마을 다이어리는 초등학생 이상 관람할 수 있다. 관람료는 R석 5만 원, S석 3만 원, A석 2만 원이며, 자세한 내용은 익산예술의전당 누리집과 전화로 확인할 수 있다.

/익산=최준호 기자

정읍시, 어린이 전용병동·진료센터가동

정읍아산병원과 '맞손' 밀착형 야간진료 제공

정읍시가 민선 8기 핵심 공약인 소아 야간진료 서비스와 어린이 전용병동 운영을 위해 정읍아산병원과 손잡고 본격적인 협력에 들어갔다.

시는 28일 정읍아산병원과 소아외래진료센터와 어린이 전용병동 운영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소아청소년들이 밤에도 안심하고 병원을 찾을 수 있도록 안전한 의료 환경을 조성하기로 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이학수 시장과 김잔디 정읍아산병원장, 순회경 시 보건소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해 지역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상호 협력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시는 내달 1일부터



정읍시는 28일 정읍아산병원과 소아외래진료센터와 어린이 전용병동 운영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사진=정읍시>

소아외래진료센터에서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시민들을 위한 밀착형 야간진료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특히 야간·공휴일에는 응급실과 연계한 진료 시스템과 소아과 전문의 당직 체계를 구축해 갑작스러운 고열이나

기타 응급 상황에 빠르게 대응할 예정이다. 시는 이번 소아진료 인프라 확충을 통해 인근 광주, 전주 등 대도시로의 의료 목적 진출을 줄이고 지방 소멸 현상을 막는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정읍=김정인 기자

익산시, '녹색자금 지원사업 평가' 장려상

원광대 무장애나눔길 누구나 걷기 좋은 숲길 선정

익산시가 자연과 사람을 잇는 포용의 길을 조성해 산림복지정책의 우수사례로 인정받았다.

익산시는 28일 산림청 산하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이 주관하는 '2024년 녹색자금 지원사업 평가'에서 무장애나눔길 분야 장려상을 받았다.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복권기금을 재원으로 녹색자금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 평가는 사업을 추진한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익산시는 '원광대 무장애나눔길 조성사업'을 통해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무장애나눔길을 조성한 성과를 인정받았다.

무장애나눔길은 '장애가 없는 길'을



뜻하며, 장애인·노약자·임산부 등 보행 약자 누구나 쉽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든 단차 없는 산책길이다.

시는 2023~2024년 총사업비 20억 원을 투입해 원광대학교에서 자연식물원을 거쳐 원광대학교병원까지 연결되는 총 4.1km 구간에 무장애나눔길을 조성

했다. 사업을 통해 테크길과 황토길로 산책로를 조성하고 곳곳에 쉼터와 벤치를 배치해 시민들이 자연에서 휴식과 회복을 누릴 수 있는 산림복지 공간을 마련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군산시, MZ세대가 사랑하는 책의 도시

'전라권 기대되는 도시'로 주목

군산시가 한국관광공사 데이터랩이 선정한 '여행하기 좋은 도시(뜨는 도시)'·'2025년 기대되는 도시'로 주목받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한국관광공사의 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군산은 이동통신 데이터, 내비게이션 검색 건수, 소셜미디어 언급량 등에서 급격한 상승세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새로운 독서 문화인 '텍스트힙(Text Hip)'에 맞춰려 MZ세대가 사랑하는 책의 도시이자 새로운 관광지로 떠오르고 있다. '텍스트힙(Text Hip)'은 독서를 단순한 정보 습득이나 학습을 넘어, '멋지고 개성 있는' 문화로 소비하는 현상을 의미한다.

‘군산북페어’는 문화도시 군산시 도시재생과와 군산시립도서관, 지역 서점이 협력하여 만들어낸 지역 특화 콘텐츠이다. 2024년 처음 열린 ‘군산북페어’는 단 이틀 동안 6,600여 명의 방문자를 기록하며 지역의 문화적 저력을 보



여주었다.

무엇보다 군산의 매력을 극대화하며, 군산이 단순한 근대 역사 관광지를 넘어 책과 문화를 결합한 특별한 감성 여행지로서의 가능성도 열어준 문화 이벤트이기도 하다.

실제로 한국관광공사 데이터랩의 북페어 HOT 연관어 1위로 '군산'이 기록되며 소셜미디어 플랫폼 언급량이 무려 1,400% 증가했다.

이와 관련해 감성적인 독립서점들이 밀집한 월명동이 행사 전후 2개월 동

안 '북페어'를 계기로 이동통신 데이터 기반 외지인 방문객 수가 2023년 대비 2024년에 12% 증가하는 반응을 얻기도 했다. 이는 관광객 유입뿐만 아니라 지역 경제와 문화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온 것으로 평가된다.

한국관광공사는 군산시를 '여행하기 좋은 도시'로 선정한 것 이외에도 2025년 전라권에서 가장 기대되는 도시로 선정하며, 군산만의 매력과 성공 사례를 높게 평가했다.

/군산=지송길 기자

익산시, 장애인 독서문화 프로그램 사업 선정

모현·영등부송도서관

익산시가 장애인의 접근성을 높여 누구나 누릴 수 있는 독서문화 복지 실현에 한 걸음 더 다가섰다.

익산시는 모현도서관, 영등도서관, 부송도서관 등 3개 도서관이 국립장애인도서관에서 주관하는 '2025년 장애인

독서문화 프로그램' 공모사업에 선정됐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장애인의 독서 접근성과 문화 향유 기회를 높이기 위해 전국 공공도서관을 대상으로 추진되며, 올해 전국 120개 관이 선정됐다. 익산시는 3개 도서관이 동시에 이름을 올리는 성과를 거뒀다.

모현·영등·부송도서관은 국비를 지원받아 오는 5~10월 발달장애인을 위한 도서관 견학, 독서활동, 문화 체험 프로그램 등을 운영할 예정이다.

시는 장애인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독서 활동의 폭을 넓히고, 문화 체험을 통해 도서관의 포용적 기능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한다.

/익산=최준호 기자

군산시, 사회적경제기업 육성 나서

최대 1,500만 원 보조금 홍보·마케팅 비용 지원

군산시가 관내 사회적경제기업의 판로개척과 인지도 제고를 위한 '2025년 사회적경제기업 육성 지역 특화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한다.

군산시에는 약 270개소의 사회적경제기업이 활동 중이다. 이 가운데 사회적기업·예비사회적기업·사회적협동조합·자활기업 약 90개소 중 유급 근로자 1명 이상 고용한 기업이 이번 사업의 지원 대상이다.

선정된 2개 기업에는 기업당 최대 1,500만 원의 보조금이 지원된다. 사업 기간은 협약 체결일로부터 오는 12월 말까지다.

지원 내용에는 △기업별 업종에 적합한 영상, 굿즈, 카드 뉴스 등 맞춤형 홍보 콘텐츠 제작 지원 △디지털 및 오프라인 광고 등 홍보·마케팅·광고 지원 △온·오프라인 입점 및 기획전 참가비용 지원 등이

다. 시는 실질적이고 다양한 방식의 재정지원을 통해 기업의 브랜드 인지도와 판로 확대를 도울 예정이다.

지난해에는 2개 기업을 지원해 제품 홍보물, 카드 뉴스·사회관계망(SNS) 콘텐츠 제작, 언론·현수막·블로그 홍보 등 맞춤형 마케팅을 추진하여 기업 스토리를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며 긍정적인 이미지 제고에 기여하기도 했다.

군산시 이현한 일자리경제과장은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사회적경제기업의 지속 가능한 수익 기반을 마련하고, 시민들에게 기업의 가치와 제품을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신청은 28일부터 5월 13일 18시 까지이며, 군산시청 7층 일자리경제과에 방문 접수하거나 담당자의 전자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누리집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군산=지송길 기자

정현을 익산시장 “황금연휴 빈틈없는 시정 운영”

지역 행사차질 없는 운영 당부

정현을 익산시장이 28일 간부회의를 통해 다가오는 황금연휴 기간 동안 시정 공백을 최소화하고, 주요 행사를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길게는 5월 1일 근로자의 날부터 6일까지 이어지는 연휴 동안 열리는 각종 문화·관광 행사에 대한 준비 상황이 점검됐다.

특히 정 시장은 오는 3~6일 나흘간 열리는 익산 서동축제와 관련, 안전관리를 비롯해 긴급상황까지 대응 체계를 원활히 운영하도록 지시했다.

정 시장은 “서동축제를 비롯해 황금연휴에 열리는 행사는 익산의 품격을 보여줄 수 있는 중요한 무대”라며 “빈틈없는 준비와 세심한 현장 관리로 행사가 성공적으로 치러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연휴 기간에도 시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며 “업무와 휴식을 적절히 조율해 충분한 재충전의 시간을 갖고, 이후 업무에 더욱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달라”고 주문했다.

시는 이번 연휴 기간 주요 행사 현장 및 공공시설 중심으로 점검과 대응 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연휴 이후 빠른 시정 정상화에 나설 계획이다.

특히 이날 정현을 시장은 건강한 조직문화 만들기 위해 강조하며 “직장 내 건강한 조직문화를 조성하는 것도 행정 서비스 품질 향상의 중요한 토대”라면서 “신내 공무원이 솔선수범해 상호 존중하고 배려하는 직장문화를 확산하고 시민에게 더욱 신뢰받는 정읍 시정을 함께 만들어 가자”고 덧붙였다.

/익산=최준호 기자

이학수 정읍시장 “보조금 관리·감독 강화”

이학수 정읍시장의 보조금 관리의 투명성과 공정성 강화를 위해 변경사항 발생 시 심의 절차를 철저히 이행할 것을 지시했다.

이 시장은 28일 열린 영상 간부회의에서 “보조금 사업의 목적과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반드시 사전 심의를 거쳐야 한다”며 “심의 없이 변경하거나 사후 보고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보조금은 시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지원되는 만큼 관리·감독을 더욱

강화해 집행의 적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부서별로 보조금 사업 추진 시 사전 검토를 철저히 하고, 변경 필요시 발생한 경우 심의 절차를 성실히 이행해달라고 거듭 주문했다.

시는 앞으로도 보조금 사업 전반에 대한 점검과 심의를 강화하고, 변경사항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절차를 통해 예산 집행의 신뢰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정읍=김정인 기자

익산시민역사기록관, 5월 가족의 추억을 잇다

가정의 달 5월, 익산시민역사기록관이 가족의 이야기를 특별하게 남기는 '기록 소풍'으로 시민들을 초대한다.

익산시민역사기록관은 오는 5월 1일부터 11일까지 '기록관 방문 주간'을 운영하고, 온 가족이 함께 추억을 기록하는 '우리가족 추억을 잇다'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기록 소풍'을 주제로 시민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으며, 가족의 이야기를 세 가지 방식으로 기록하는 체험이 마련된다.

먼저 '사진으로 기록하기'는 기록관에서 찍은 가족사진을 액자에 담아 하얀색인 기록으로 남길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엽서로 기록하기'는 가족에게 전하는 사랑과 감사를 엽서에 작성해 기록우체통에 넣으면, 추석에 전달된다. '추적으로 기록하기'는 개인 사회



관계망서비스(SNS)에 기록관 관람 인증 해시태그를 게시하면 추억의 뽑기 체험을 제공해 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두가 즐길 수 있다.

이번 방문 주간에는 기록관에서 진행되는 체험뿐만 아니라 주변에 조성된 역사공원에서 봄꽃도 만날 수 있다.

/익산=최준호 기자

제 95회 춘향제 내일 팡파르

30일 개막식, 1일 춘향제향 축제 정체성·상징성 봉행 여성제관 유일 제례의식

올해로 95회를 맞는 대한민국 대표 전통문화축제 '남원 춘향제'가 5월 1일 오전 10시, 광한루원 정문 앞 메인 공연장에서 춘향의 낯을 기리는 전통 제례 행사 '춘향제향(春香祭享)'으로 의미 있는 시작을 알린다. <관련기사 12면>

춘향문화선양회 주관으로 진행되는 춘향제향에는 제전위원, 시립국악단, 지역 관계자와 시민 등 약 4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며, 여성 제관이 중심이 되 점시례, 분향례, 전폐례, 참신례, 초헌례, 아헌례, 종헌례, 사신례, 분축례 등 전통 절차로 진행된다.

춘향제향은 1931년 일제강점기 춘향사당을 건립한 후, 단오날인 음력 5월 5일에 열렸던 제례에서 비롯됐다. 민족 의식 고취와 열녀 춘향의 정신을 계승하고자 시작된 춘향제향은, 일제강점기와 6.25전쟁을 거쳐 오늘에 이르기까



95회 남원 춘향제가 5월 1일 광한루원 정문 앞 메인 공연장에서 춘향의 낯을 기리는 전통 제례행사 '춘향제향'으로 의미 있는 시작을 알린다. <사진=남원시>

지 전통을 지켜오며 여성 제관이 참여하는 유일한 제례의식으로 그 의의가 크다.

시 관계자는 "춘향제는 춘향제향을 시작으로 본격화된다"며, "90여 년 넘게 이어져 온 유서 깊은 전통의식이자 춘향제의 정체성과 상징성을 담은 뜻 깊은 행사인 만큼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제95회 남원 춘향제는 30일부터 오는 5월 6일까지 7일간, 광한루원과 요천둔지, 사랑의 광장 일원에서 '춘향의 소리, 세상을 열다'를 주제로 개최된다.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공연, 체험, 미식 콘텐츠 등 풍성한 볼거리와 즐길거리, 먹거리를 통해 전 세대가 함께 어우러지는 축제로 진행될 예정이다.

/남원=정하복 기자

유희태 군수 “중점사업·청렴도·건설 활성화를”

수소·만경강·문화산단 역점 선제적 교통 인프라 구축

완주군 100대 중점사업 추진, 청렴도 향상,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구체적인 실천방안이 제시됐다.

28일 유희태 완주군수는 확대간부회의에서 군정 주요 현안 점검 및 향후 추진전략 등을 논의했다.

특히 군은 민선 8기 3년차를 맞아 △

수소특화 국가산단 조성 △만경강 통합하천사업 △문화산도산단 조성 등 핵심 사업을 신속히 추진해 가시적 성과를 창출할 계획이다.

또한, 최근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대광법) 개정으로 광역교통 인프라 구축을 위한 국비 지원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부서별 대응 전략 수립과 연계사업 발굴 등 선제적 대응에 나설 예정이다.

아울러,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직원들의 일·가정 양립 문화 조성에도 힘쓰

다.

군은 또한 2025년 국민권익위 종합청렴도 1등급 달성을 목표로 △청렴헌장 법제화 △청렴학당 운영 등 41개 과제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유 군수는 악성 민원에 대한 엄정한 법적 대응, 신속집행을 통한 예산집행률 제고,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중앙부처·전북도 출장 추진 등 다양한 당면 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완주=김명곤 기자

순창군, 제2회 섬진강 트레일레이스 성료

1억 3천여만 기부금 유치 노동교류·지역 활성화 성과

순창군이 지난 26일 용굴산·섬진강 일원에서 개최한 '제2회 순창 섬진강 트레일레이스'가 전국 러너와 군민들의 큰 호응 속에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이번 대회는 순창의 자연경관을 활용한 힐링형 스포츠 이벤트로, 8km와 21km 두 개 코스에서 진행됐으며, 전국 각지에서 고향사랑기부에 참여한 800여명이 참가해 레이스를 펼쳤다.

이날 개최식에는 김관영 전북도지사, 정동영 국회의원, 최영일 순창군수, 김택수 전북도민일보 회장, 황의숙 순창아너스클럽 회장 등 관계자와 각계 인사들이 참석했다.

이번 트레일레이스 참가자격을 순창군에 고향사랑기부금 10만 원 이상을 납부한 이들에게 주어졌으며, 이는 일회성 기부를 넘어 지속 가능한 지역 후원 체계를 마련하는 데 큰 의미를 더했다. 실제로 이번 대회를 통해 총 1억



순창군이 지난 26일 용굴산·섬진강 일원에서 개최한 '제2회 순창 섬진강 트레일레이스'가 전국 러너와 군민들의 큰 호응 속에 성료했다. <사진=순창군>

3,300만 원 상당의 기부금이 모였으며, 참가자들에게는 순창군 생활군민증과 기념품이 제공돼 실질적인 혜택도 함께 돌아갔다.

대회는 오전 8시 하프코스(21km) 출발을 시작으로, 8시 40분부터 개최식이 진행된 후 오전 9시에 8km 코스가 출발하며 본격적인 레이스가 이어졌다.

각 코스에서는 실력 있는 러너들이

우승을 차지했다. 8km 코스 남녀부 우승은 박영운씨와 윤혜진씨, 21km 코스에서는 고정용씨와 조정애씨가 경쟁을 펼치며 우승의 영예를 안았다.

특히 대회 종료 후, 직장·공공재마을 운동 묵송협의회와 남부대학교 소속 참가자들은 순창읍 양진천 일원에서 플로깅 활동을 펼쳤다.

/순창=박지현 기자



제95회 춘향제는 '하늘 그네'와 '미꾸아 놀자' 행사 등 다양한 체험컨텐츠를 마련했다. <사진=남원시>

춘향제서 360도 회전 '하늘그네' 선보

전통을 현대기술로 재해석 그네뛰기 기록 상품 증명

제95회 춘향제에서 전통 그네를 현대 기술로 재해석한 체험 '하늘그네'를 선보인다.

ICT(정보통신기술) 융합 기술로 360도 회전이 가능한 체험형 레저 시설로 오는 30일부터 5월 6일까지 7일간 유채꽃밭 일원에서 운영해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색다른 경험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춘향제에서 하늘그네는 체험 이벤트와 챌린지 이벤트로 진행이 될 예정이다. 체험은 5월 6일까지 5일간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되며 현장 접수

로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다. 체험자 중 일정 각도 이상 달성자는 소정의 상품이 증정될 예정이다.

또한 챌린지는 3~4일 이틀간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되며, 현장 접수로 참여할 수 있다. 체험자 중 최단 시간 최고 각도 기록 순 1등~3등, 그네 각도 150도 이상을 기록하면 소정의 상품이 증정된다.

하늘그네는 전통 그네의 원리를 바탕으로 세계 최초, 국내 유일의 360도 회전이 가능한 시설이며 탄소 배출 없는 친환경 시설이다. 만 4세 이상, 체중 90kg 이하 누구나 탑승할 수 있으며, 3중 안전장치를 갖췄다. /남원=정하복 기자

남원 미꾸리 잡고 맛보고

춘향제 '미꾸아 놀자' 진행 어린이 미꾸리잡가간식 체험

남원시농업기술센터(소장 김연주)와 남원추어시푸드플러스트사업단은 제95회 춘향제 기간인 30일에서 5월 6일까지 요천 수경물놀이시설에서 미꾸아 놀자 행사를 추진한다.

어린이 체험프로그램으로 기획된 이번 행사는 약 600㎡ 규모의 수변시설을 이용한 풀장에서 진행하는 미꾸리잡기 체험과 잡은 미꾸리를 활용한 아쿠아포닉스 화분 만들기, 페이스페인팅, 친환경자연

거 솜사탕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체험활동으로 출출한 아이들에게 추억의 판불고기, 추어납작만두, 미꾸아 구이랑과 젤리 등 추어시푸드플러스트사업단에서 개발한 간식거리로 시식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관광객들에게 남원 미꾸리 공유양식 플랫폼과 청년 스마트 미꾸리양식 창업사관학교등 중점사업을 홍보하고 미꾸리를 활용한 추어육개장, 추어해장국, 추어해물전골, 추어탕불럭, 미꾸아 자일리 롤 캔디등 추어가공식품을 판매한다. /남원=정하복 기자

완주군 간부공무원, 청렴완주 구현 앞장

청렴헌장 실천 서약식 부서당 1청렴 시책 발굴

완주군은 28일 간부 공무원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청렴헌장 실천 서약식을 추진했다.

서약식에서 간부공무원들은 반부패·청렴 실천의지를 다지고 청렴 생활화를 통한 부패척결, 공평정대한 업무추진, 알선·청탁 근절 등 공무원 행동강령을 철저히 준수해 청렴완주 구현에 앞장설 것을 다짐했다.

군은 간부공무원의 청렴헌장 실천 서약식으로 완주군민 및 후배 공직자들에게 청렴한 공직 수행과 청렴 실천력 강화 의지를 표명했다.



서약식과 함께 유희태 군수 주재로 청렴회의체 회의를 열어 부패취약분야 개선을 위한 1부서 1청렴 시책 44건을 발굴해 부패취약분야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를 중점 추진했다.

군은 이를 토대로 전 직원 대상 청렴교육, 청렴 슬로건 공모전 추진 등 청렴도 향상을 위한 시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완주=김명곤기자

순창군, 공공대금 지급 전 체납 확인 시스템 도입

군청·읍면센터 기능 연계 방식 지급대상자 체납 실시간 확인

순창군은 오는 5월부터 지방재정시스템과 지방세정보시스템 간 전산 연계를 통해 공공대금 지급 대상자의 체납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체납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공공대금 지급 전 납부를 독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군청 내 계약과 지출이 이뤄지는 모든 부서와 읍·면 행정복지센터의 업무와 지방세 체납 징수 기능을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체납민이나 개인에게 공공대금이 지출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고, 체납액 징수율을 높이는 것은 물론 체납 예방 효과까지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순창군은 체납자의 부담을 덜기 위해 다양한 납부 편의 제도를 마련했다. 고액의 세금을 한 번에 납부하는 대신 일정 금액씩 여러 달에 걸쳐 나누어 납부할 수 있는 '분납 제도'와, 신용카드를 이용해 무이자 할부로 납부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해 체납자를 배려하고 있다.

/순창=박지현 기자

완주군, 농타작물 생산장려금 5월말까지 신청·접수

완주군이 쌀 과잉생산 해소와 식량작물 자급률 제고를 위해 농타작물 생산장려금 신청, 접수를 오는 5월 31일까지 받는다.

신청대상은 완주군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또는 법인)으로, 대상농지는 2025년 논에 벼 대신 타작물을 재배하고, 2018~2024년 기간 중 농타작물 재배지원금을 수령한 농지 또는 2017~2024년 중 최소 1회 벼 재배사실 확인이 된 농지다.

농타작물 지원 품목으로 일반작물, 녹비작물, 휴경은 ha당 200만 원을 옥수수, 하계조작료, 깨는 ha당 100만 원이 지원된다. 신청 단위는 필지 단위이며, 최소 신청면적은 농업인 당 1,000㎡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지원제도의 품목은 일반작물중 마늘, 건고추, 노지감자, 가을무이며 전라작물 직불제 지원 품목인 하계두류, 가루쌀도 제외된다.

지원금 신청은 논 타작물을 재배하는 농지 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지원금은 신청자들의 타작물 재배 이행여부를 확인 후 연말에 지급할 계획이다.

최장학 완주군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쌀 과잉문제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쌀 생산을 줄이고 식량 자급률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사업 홍보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완주=김명곤기자

경초장학재단, 지역 인재 육성 순창 출신 대학생에 장학금

(재)경초장학재단(이사장 김택수)은 지난 26일 순창군 용굴산 산림휴양관에서 '2025학년도 대학 신입생 장학생 장학증서 수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여식은 '제2회 섬진강 트레일레이스' 기념식과 연계해 진행됐으며, 장학생과 학부모, 행사 참석자 등 총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김택수 이사장이 직접 장학증서를 전달했다.

장학금은 육천인제수 수료생 중 2025학년도 대학 신입생 10명을 대상으로 1인당 100만 원씩 총 1,000만 원이 지급되며, 재단은 이를 통해 지역 인재 발굴 및 육성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경초장학재단은故 김재호 초대 이사장의 유지를 바탕으로 2010년 12월 설립된 이후, 전라북도 내 고등학생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장학사업을 꾸준히 추진해 오고 있다.

특히, 유가족과 관계자들이 자발적으로 조성한 장학기금을 통해 재단의 설립 취지를 실현해 오고 있으며, 이번 장학금 지급 역시 지역 교육 발전에 기여하려는 지속적 인 노력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순창=박지현 기자

EBTS협동조합 남원지국 섬김노인요양센터 위문봉사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ebts협동조합(회장 이승원) 남원지국(김종관)국장등 조합원 25명은 지난 24일 남원시 광천남길 400번지소재 노인요양시설인 섬김 노인요양센터(원장 김은미)을 찾아 소외받고 외로운 어르신(30명)들에게 노래공연과 위문품(과일, 음료수)을 전달하는 등 위문봉사 활동을 펼쳤다.

지난 2019년 설립된 ebts협동조합은 퇴직후 시니어를 위주로 결성된 조합원들로 사회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하는 착한 소셜벤처기업이다.

이번 협동조합원 관계자는 조합설립 이념인 환난상환과 상생 정신에의거 매월 사회취약시설에 지역가수들의 노래공연, 위문품전달 및 주변 환경정리 등으로 좋은 호평을 받고 있다면서 계속 지역의 어려운 요양시설 등을 찾아 다니며 소외된 어르신들을 위로할 계획 이라고 뜻을 밝혔다.

또한 찾아가는 주유서비스 배달 앱 즉진주유전하를 25년 말 전국 3,000개 가맹주유소를 통해 전국에 상용화하며 남원시주천면에 ebts지리산연수원을 설치 지역경제에도 이바지할 계획이다.

/남원=정하복 기자

완주군, 어린이날 300명 코스프레 축제

3일 군청 어울림마당서 퍼레이드 참여 어린이 모집

오는 5월 3일, 완주군청 어울림마당에서 어린이날 대축제가 열린다. 이날 완주군은 '미래의 완주 히어로, 오늘은 내가 주인공'을 주제로 코스프레를 컨셉으로 어린이 및 가족을 초청한다.

군은 어린이가 좋아하는 캐릭터로 변신해 퍼레이드에 참여할 어린이 300명을 모집하고 있으며, 완주군지역아동센터협의회와 농협중앙회 완주군지부가

주관하는 아동친화도시 그림그리기 대회 300명, 바둑체험 및 대회 100명, 굿네이버스 전북지부가 주관하는 아동권리골든벨 500명도 모집하고 있다.

행사 당일 방문하는 모든 어린이에게 마술 및 바블공연, 가족오페라 신통귀, 아동권리책 전시가 진행된다.

아울림마당에는 미래, 행복, 도시존으로 구성된 어린이가 좋아하는 디지털, 과학기술, 놀이 등 체험존 90여개 부스가 운영될 예정이다.

녹색환경을 위해 텃밭러 지참 어린이, 가족에게 커피, 음료 등을 할인판

매하고, 어린이 분거수거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해 환경교육도 함께 진행한다.

이외 완주북학지구 누에에서는 섬유·도에·목공 프로그램, 채취가는 미술관 등 8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완주청년이는 운영하는 그린키킵은 건강한 먹거리 체험을 운영한다.

프로그램 사전접수와 현장참여가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완주군 교육정책과 아동친화팀 또는 완주군 아동청소년홈페이지(wanju.go.kr/wanjucfc)를 참조하면 된다.

/완주=김명곤기자



김형균 한결전기 대표, 부안군에 100만 원 기탁

부안군 행안면에서 한결전기를 운영 중인 김형균 대표가 지난 25일, 부안군에 고향사랑기부금 100만 원을 기탁했다.

김형균 대표는 그동안 이웃돕기 성금, 지역 초등학교 장학금, 취약계층 후원 등 다양한 형태의 나눔을 꾸준히 이어오며 지역사회와 함께해 왔으며, 이번 기부는 고향사랑기부제의 취지에 공감해 자발적으로 실천한 것이다.

김 대표는 “부안은 제 삶의 터전이자 정이 담긴 고향”이라며 “앞으로도 지역에 도움이 되는 일에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싶다”고 전했다.

/부안=신상수 기자



군산근대역사박물관, 21일부터 부경희 수목담채화 전시

군산근대역사박물관(이하 '박물관') 2층 시민열린갤러리가 오는 29일부터 6월 29일까지 작가 부경희의 개인전 '자연을 묵향에 담아내다'를 연다. 이번 전시에서는 동양의 따뜻한 분위기를 작품에 담고 여백의 미를 통해 각자의 의미를 포함하는 부경희 작가의 수목담채화 30점을 선보인다.

부경희 작가는 “한 번의 획이 살짝 지나간 자국에서 희미한 색의 흐름조차 깊은 뜻이 담겨 향기가 묻어나는 작품을 통해 관람객들이 수목화의 매력에 매료되길 바란다”라며 소개의 글을 남겼다.

/군산=지송길 기자

익산시자원봉사센터, 순창군에 시민·기업 모금 구호성금 전달

익산시가 산불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순창군을 위해 따뜻한 연대의 마음을 전했다.

익산시자원봉사센터(센터장 강태순)는 28일 순창군청을 방문해 구호성금 500만 원을 전달했다.

전달된 성금은 익산시민과 지역 기업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모은 것으로,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피해 복구와 주민 긴급 지원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익산=최준호 기자

전북베트남인회, 안동 산불 이재민 돕기 성금 전달

함께 나눔이 진정한 공동체

전북특별자치도는 3월 발생한 경북 지역 대형 산불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을 돕기 위해 전북베트남인회(회장 김지연)가 성금 300만 원과 생필품을 마련해 안동시가속센터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전북베트남인회 김지연 회장은 “조상 대대로 살아온 살터를 한순간에 잃은 이재민들을 보며 가슴이 아팠다”며, “이웃의 아픔을 함께 나누는 것이 진정한 공동체”라

고 말했다.

김 회장은 도내 베트남인 네트워크를 활용해 이재민들을 위한 모금활동을 전개했다. 전북베트남인회 회원들이 십시일반 모금한 후원금 300만원과 생활필수품을 모아 이달 초 안동시가속센터에 전달했다.

전북베트남인회는 회원 약 2만 명이 참여하는 이주민 커뮤니티로, 매년 지역사회와의 연대 실천을 이어오고 있다.

/김영태 기자



정읍, 장애인 대상 '청춘사진관' 행사 추억 선물

복지관·자원봉사센터 주관

정읍시장장애인복지관과 자원봉사센터가 장애인을 대상으로 '청춘사진관' 행사를 열어 삶의 특별한 순간을 선물했다.

복지관과 자원봉사센터는 지난 25일 복지관 이용 장애인을 대상으로 청춘사진관 행사를 공동 주관하며 소중한 추억을 선사했다.

이번 행사는 노년기 장애인과 취약계층 25명을 초청해 젊은 시절을 회상하고 특별한 순간을 기록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특히 다양한 분야의 자원봉사자들이 함께해 의미를 더했다.

이날 복지관 다목적실은 촬영 스튜디오로 탈바꿈했다. 자원봉사자들은 메이크업, 헤어, 의상 코디를 지원하며 참여자들의 변신을 돕고, 전문 사진작가가 한 컷, 한 컷 정성을 담아 촬영을 진행했다. 촬영을 마친 후에는 인화된 사진과 함께 액자도 제공돼 참가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정읍=김정인 기자



예수병원, 부활절 맞이 '삶을 온전히' 찬양 예배

전주 예수병원(병원장 신충식)이 지난 '부활절' 맞아 따뜻한 감동의 연합 찬양 예배를 드렸다.

예배는 '삶을 온전히(Life On Journey)'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이날 예수병원 직원들로 구성된 '제이크루 워십팀', 외부 워십팀 '웨이브 프로젝트' 연합, 기쁨과 복음의 예배가 예수병원 로비에서 울렸다.

찬양 예배는 영접송과 임례, 부활의 소망을 노래하는 은혜로운 찬양으로 이어졌다.

특히 환우들을 위한 기도 시간에는 병원 의료진, 보호자 손이 맞잡아 예수병원 전체를 하나의 예배당으로 변화시켰다.

예수병원에 올려퍼진 부활절 찬양은 고통 중에도 부활의 소망을 잃지 않도록 환자와 가족들에게 따뜻한 위로가 됐다.

예수병원은 선교적 비전을 품고, 환자들과 보호자, 의료진에게 복음을 전하고 영적인 돌봄을 실천해오고 있다.

/김영태 기자



정읍 황토현농협, 산불 피해 성금·영농자재 지원

정읍 황토현농협이 소성면 산불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위해 성금과 영농자재를 지원하며 농업 재건에 힘을 보탰다.

황토현농협은 지난 25일 소성면 산불 이재민을 돕기 위해 477만원의 성금을 기탁하고, 2000만원 상당의 농약과 비료 등 영농자재를 지원했다. 특히 이번 성금은 황토현농협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십시일반 모은 금액으로 마련돼 의미를 더했다.

이번 지원은 농번기가 시작되는

시점에 이뤄져 피해 농민들이 조속히 농사를 재개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황토현농협은 성금 기탁 외에도, 피해 농가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필요한 농약, 비료 등 주요 영농자재를 적극 제공하며 재해복구에 힘을 쏟고 있다.

유형기 조합장은 “앞으로도 지역 사회 복구와 재건을 위해 지속적으로 힘을 보탤 것”이라고 전했다.

/정읍=김정인 기자



완주군 어르신 70여 명 안덕마을서 '인절미 만들기' 체험

완주군 구이노인복지센터가 나들이 기회는 적은 어르신 70여 명과 함께 완주 안덕 건강힐링체험마을을 방문해 '인절미 만들기' 참여 활동을 진행했다.

이번 체험은 노인맞춤돌봄서비스의 일환으로, 밥을 찐 뒤 떡메로 찌는 뒤 손으로 빚고 고소한 콩고물을 입히는 전통 인절미 만들기 전 과정을 어르신들이 직접 체험하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참여한 한 어르신은 “떡도 만들고 바람도 쐬니 너무 신난다”며 “불러줘서 고맙다”고 인사를 전했다.

안정현 구이노인복지센터장은 “외부활동이 쉽지 않은 어르신들이 체험을 통해 인절미도 만들고 소중한 추억을 남기신 모습을 보며 뿌듯함을 느꼈다”며 “앞으로도 어르신들의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꾸준히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완주=김명곤 기자



완주군 원아들, 지구의 날 행사 수입금 30만 원 기탁

완주군공립어린이집(분과대표 한수형)의 원아와 보육교직원 60여 명이 28일 완주군청을 방문해 지구의 날 행사에서 마련한 수익금 30여만 원을 전달했다.

이번 수익금은 지난 22일 지구의 날을 기념해 가족문화교육원에서 열린 행사에서, 원아 350여 명이 직접 재활용 페트병을 모으는 활동을 통해 마련됐다.

수익금 전달식 이후에는 환경보호 캠페인 사진 전시를 관람하며 환경보호의 중요성을 되새겼다.

/완주=김명곤기자

■ [새만금개발청 인사]

국장급 승진(2025년 4월 28일)

▶ 개발사업국장 남궁재웅
전) 새만금개발청 개발전략국 투자유치과장

봄철 산불 조심기간

예방 행동

라이터 등 인화성 물질 소지금지

불법 취사 금지

폐쇄 등산로 출입금지

쓰레기 소각 금지

대처요령

빠른신고

(산림청, 소방서, 시, 군관련부서)

신속 대피

(산불진행 방향 벗어나기)

초기진화

(작은불은 외투나, 흙으로)

〈一事一言〉



나라 망칠 송미·기회주의자 한덕수(1)

오태규
언론인

#장면 1

1995년 한미 자동차 협상 때의 일입니다. 미국 자동차제조업협회가 한국을 ‘슈퍼 301조 우선협상대상국’(강력한 무역 보복 후보국)으로 지정해 달라고 미국 정부에 요구하면서 협상이 개시됐습니다. 당시 한국 정부는 통상산업부 무역심의관을 수석대표로 하고 외무부·건교부 등 관계 부처 직원들이 참여하는 범정부 대표단을 꾸려 협상에 나섰습니다. 그때 통상부 통상무역실장이던 한덕수는 협상팀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협상팀 몰래 미국과 비공식 협상을 벌이는 월권을 자행했습니다. 미국 쪽 요구사항을 거의 수용하기로 독자적으로 타협하고 협상팀에 이를 통고했습니다. 협상팀은 절차와 내용을 문제 삼으며 크게 반발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을 등에 업은 그의 반칙 행위는 흐지부지되고 불리한 협상은 그대로 추진됐습니다.

#장면 2

2010년 그가 이명박 정권의 주미대사를 하고 있을 때 일입니다. 외교통상부의 고위 간부가 미국에 업무차 출장을 갔습니다. 이 간부가 대사를 만나러 대사실에 들어가자마자, 그가 대뜸 외교통상부 본부에 대한 불평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미국 기업들과 열심히 만나면서 그들이 한국에서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다 수집해 본부에 보냈는데 아무런 처리도 하지 않고 있다”라고 거품을 물었습니다. 듣다 못 한 이 간부가 “대사님은 한국대사로 나와 계시면서 미국무역대표부(USTR) 일까지 다 하셨네요”라고 응수하자, 그가 화를 삭이지 못하고 벌떡 일어나 밖으로 나가더라는 증언입니다.

#장면 3

2012년 그가 주미대사를 돌연 그만두게 된 배경입니다. 그해 2월에 열린 재외공관장 회의를 위해 귀국한 그가 이명박 대통령에게 독대를 신청했습니다. 한미 두 나라는 당시 무역협정(한미FTA)의 비준을 놓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미국 쪽의 요구대로 의료보험 약가 상한제를 풀어야 하면, 미국이 더는 까탈 부리지 않고 비준할 것이라는 복안을 준비해 왔습니다.

하지만 그의 의중을 미리 간파한 복지부가 독대에 앞서 이 대통령에게 미국의 요구를 수용하면 한국 의료체계가 무너진다고 설득하고 동의까지 받았습니다. 이런 사실을 모른 그가 이 대통령과 독대에서 미국 쪽 요구를 수용하라는 건의를 하자, 이 대통령이 바로 그 자리에서 ‘해고’ 통보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친미 성향의 이 대통령조차 그의 ‘과잉 친미’를 용납할 수 없었던 거죠.

이 밖에도 그의 친미 행각을 보여주거나 증언하는 사례는 부지기수입니다. 그는 자신이 친미나

송미주의자가 아니라, ‘국제파’ 또는 ‘지미파’, ‘미국 활용파’로 불릴 길 바란다고 하지만 말입니다. 무엇보다 심각한 일은, 이렇게 뻥속까지 친미주의자인 그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미국 제일주의 무역정책을 그대로 수용할 태세라는 점입니다. 그것도 선출된 대통령이 아니고 잠정적인 대행 주제에, “나의 권한은 헌법과 관련 법률에서 비롯되며, 권한대행과 선출된 대통령 간에 수행할 수 있는 업무에 차이가 없다”라는 궤변까지 늘어놓으며 폭주하고 있습니다.

두 달도 남지 않은 한시적인 대통령 대행이 지금 최우선으로 할 일은, 차기 대선을 공정하게 관리하는 일입니다. 그런데도 자신의 대선 출마론에는 가타부타 확언하지 않은 채 간을 보면서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트럼프 정권과 관계 협상에는 저돌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미국 쪽에서 골수 친미 대행이 이끄는 약체 과도 정권을 상대로 최대한 많은 이익을 뽑아내자는 계산이겠지만, 한 대행은 무슨 꿈꾸이로 차기 정권에 부담이 될 게 뻔한 일을 ‘마지막 소임’ 운운하며 나서는 걸까요. 더구나 그가 통상 관료로서 친미적인 태도를 보였던 시절의 미국은 동맹과 자유무역을 중시한다는 명분이라도 있었습니다. 지금 트럼프 정권은 이전의 미국과 완전히 다릅니다. 오로지 미국의 이익만을 앞세

운 채 동맹과 자유무역을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최근 <명품 외교의 길>이라는 한국 외교 비판서를 낸 이창천(가명) 전 대사는, 이 책에서 한 대행과 관련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미국은 정부 고위층에 있는 그를 이용해 협상의 실익을 전부 챙겼다. 미국은 보이지 않는 손과 들리지 않는 목소리를 사용해 두 번에 걸쳐 그를 총리직에 올렸는지도 모른다.

미국이 한국 정부의 인사에 깊숙이 개입해 왔다는 것은 다 알려진 비밀이다.” 아마 이 문장에서 한 대행이 상식을 벗어나 행동하고 나선 이유를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의 최근 행태는 여태껏 그를 키워주고 밀어준 미국에 마지막 보답을 하겠다는 것 말고는 이유를 찾기 어렵습니다. (계속)

본 칼럼은 시민언론 민들레에 기 게재된 내용임을 밝힙니다.

외부원과 및 기고는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사설

이재명 대선후보의 리더십을 주목한다

윤석열 일당의 내란 사태로 인해 우리 사회는 깊은 내상을 입었다. 민주주의의 근간이 뒤흔들리고, 헌정질서는 유린되었으며, 경제와 민생은 나락으로 떨어졌다. 그러나 우리는 결코 절망 속에 머물 수 없다. 무너진 헌정질서를 복원하고, 다시 한번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일으켜 세워야 한다. 바로 이 중차대한 시대적 과제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맡게 됐다.

이재명 후보는 지난 27일 6·3 대통령 선거 민주당 경선에서 역대 최고치인 89.77%의 압도적 득표율로 본선을 확정지었다. 이는 국민의 절박한 열망과 명령을 담은 결과이다. 민주주의를 다시 세우고 아직도 곳곳에 남아 있는 내란 동조 세력을 발본색원하며, 경제와 안보를 다시 일으켜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가 이 후보한테 쏠렸다.

내란 이후 혼란을 정리하고 새로운 국가를 재건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을 것이다. 무엇보다 법치와 민주주의의 회복이 최우선 과제다. 헌정질서를 파괴한 자들과 이에 동조하거나 묵인한 세력에 대해 철저한 진상 규명과 엄정한 책임 추궁이 이뤄져야 한다. 그것이 정의이며, 다시는 이러한 비극이 반복되지 않게 하는 유일한 길이다. 이 후보는 민주주의의 수호를 위해 국민적 연대를 폭넓게 구축해야 한다. 경선 과정에서 함께 경쟁했던 김동연, 김경수 후보 등 다양한 인사를 포용하고 당 밖으로는 시민사회와 민주 진영을 하나로 묶는 통합의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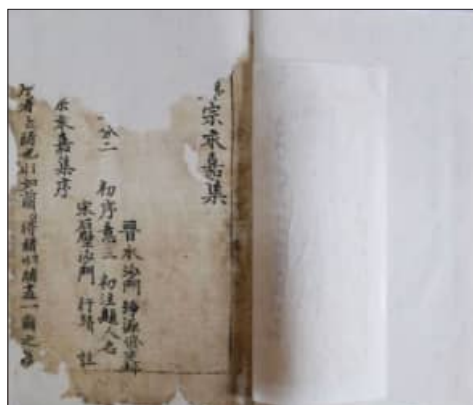
경제 또한 시급한 과제다. 내수 부진과 글로벌경기 침체 등의 여파로 민생이 위

기에 몰려 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전쟁’은 우리 수출 산업에 막대한 타격을 예고하고 있고 서민 경제는 갈수록 피폐해지고 있다. 이재명 후보가 제시한 ‘실용주의를 통한 성장과 회복’은 이 난국을 타개할 현실적 비전이다. 국가 안보 역시 중차대한 과제다. 내란 사태는 우리 사회 내부의 균열을 적나라하게 드러냈고 외부의 위협 또한 날로 커지고 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을 국가의 최우선 사명으로 삼는 리더십이 요구된다.

만약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면 인수의 없이 곧바로 새 정부를 출범시켜야 하는 특수한 상황에 놓이게 된다. 준비되지 않은 정권은 혼란만 키울 뿐이다. 표심을 겨냥한 공허한 약속이 아니라 실제로 집행 가능한 정책과 실행 전략을 갖추는 것이 절실하다. 만약 이 후보가 대통령직과 국회 다수당이라는 강력한 권한을 동시에 갖게 된다면 그 힘은 반드시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행사돼야 한다. 국정 운영의 모든 과정에서 국민과의 신뢰를 최우선에 두고 공정과 포용의 가치를 실천해야 한다. 권력은 나눌 때 믿이 나고 통합은 차이를 인정할 때 이뤄진다.

국민들은 윤석열 내란 사태를 통해 민주주의의 소중함과 취약함을 절감했다. 이제는 과거를 넘어서야 한다. 상처를 치유하고 다시 일어서야 한다. 한 달여 후에 출범할 새 정부는 이러한 역사적 사명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국민도 함께 지켜보고 함께 참여하며 이 길에 동참할 것이다. 우리는 다시 일어서서 더 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문화재열전



백련사 선종영가집언해 (전북특별자치도 유형문화유산)

- 분류- 기록유산, 전적류, 목판본
- 지정일- 2014년 10월 31일
- 시대- 조선시대
- 소재지- 남원시 인월중군길 550 (인월면, 백련사)

▲오늘의시

들녘에서 / 황지우

바람 속에
사람들이...
아이구
이 냄새,
사람들이 살았네

마을 앞
흙벽에 붙은
작은
붉은 우체통

마을과 마을 사이
들녘을 바라보면

온갖 목숨이
아깝고
안타깝도록
아름답고

야 이년아, 그러다고
소식 한 장 없나

시인 약력 : 1952년 전남 해남 출생. 서울대학교 미학과를 졸업하고 서강대학교 대학원 철학과에서 석사학위를 받았으며 홍익대학교 대학원 미학과에서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1980년 중앙일

보 신춘문예에 입선하고 '문학과지성'에 시를 발표하며 등단했다. 한신대학교 문예창작학과 교수로 거쳐 한국예술종합학교 연극원 극작과 교수와 총장을 역임했다. 시집으로 '새들의 세상을

뜨는구나' '겨울-나무로부터 봄-나무에게로' '나는 너다' '개 눈속의 연꽃' '저물면서 빛나는 바다' 등이 있다. 제3회 김수영문학상과 제36회 현대문학상, 2006년 옥관문화훈장 등을 수상했다.

JBT 전북타임스 Jeonbuk Times 2011년 10월01일創刊/ 등록번호 전북 가-00022(발행인) 54990 www.jeonbuktimes.co.kr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태진로77(진북동)5층

발행·편집인 송민순	편집국장 정재근	인쇄인 김은주
대표전화 282-9601	업무국 팩스 282-9604	편집국 팩스 283-8800
전주시지 010-9845-4113	군산지국 010-8641-7942	무주지국 010-8411-0835
중앙지시 010-9678-4271	남원지국 010-2285-3987	임실지국 010-8642-6502
연우지시 010-8640-6855	익산지국 010-9560-3075	진안지국 010-2439-1721
팔백지시 010-3015-4791	김제지국 010-4572-6112	장수지국 010-8626-6049
송천지시-010-5242-3694	정읍지국 010-2800-2934	순창지국 010-5312-7293

-구독료 :월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CO₂

푸른하늘을 지키는 작은 실천

작은 실천이 늘어나면 큰 변화를 가져 올 수 있습니다

https://www.jeonbuktimes.co.kr 광고문의-063)282-9601 신문구독 -063)282-9600

제95회 남원 춘향제

전국에 울려 퍼지는 춘향의 소리



남원시 광한루원 일대에 춘향을 형상화한 화려한 꽃 조형물과 형형색색의 꽃길이 어우러져 축제 분위기를 한층 돋운다
<사진=남원시>



대길동놀이



대길동놀이



하늘크네

춘향의 본산지인 전북 남원은 매년 5월이면 '이도령과 춘향이 처음 만난 날'로 회귀하며, '춘향'의 도시로 재탄생한다. 지난 1931년부터 춘향과 이몽룡이 만난 날을 기념, '춘향제'를 열기 때문이다.

실제로 일제강점기 암울했던 시절부터 우리 민족을 위로하고, 기쁘게 만들었던 대한민국에서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축제, 남원 춘향제 개막(4월 30일)이 엿새 앞으로 다가왔다.

올해는 95회를 맞이하며 '춘향의 소리, 세상을 열다'라는 주제로 오는 30일부터 5월 6일까지 7일간 광한루원 일원, 요천변 등지에서 펼쳐진다.

남원 춘향제는 지난해부터 100주년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분기점을 맞아 다양한 국가, 다양한 세대가 참여하는 글로벌 축제를 표방하며 매년 주제를 설정, 축제를 추진하는 등 정체성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이에 올해는 소리의 고장이자 국악의 성지로 손꼽히는 남원의 특색을 살려 전통과 현대, 동양과 서양, 소리와 기술이 융합된 △한국의 소리△세계의 소리△융합의 소리를 메인 테마로 100여 가지의 다양한 공연을 구성, 7일간의 소리여정으로 꾸밀 예정이다.

먼저 '한국의 소리' 테마에서는 춘향제의 정체성이 가득 담긴 전통국악과 예술단체 공연이 선사하는 깊이있는 한국전통 음악이 축제 기간 내내 펼쳐지며 특히, 남원의 고유한 소리를 현대적으로 해석한 공연 등이 다채롭게 펼쳐질 예정이다.

'세계의 소리'에서는 여러 나라의 전통 음악과 현대적인 해석이 결합된 공연 등을 비롯한 세계 교류 공연을 통해 각국의 다양한 공연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고, 이밖에 '융합의 소리'를 통해서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지는 색다른 무대, 퓨전 국악과 국악클럽 공연 등이 한껏 펼쳐질 예정이다.

그러면서 남원 춘향제는 올해 더 시민들과 더 함께 즐기고 꾸미는 여러 무대를 선보인다. 실제로 '300인의 남원시민합창단'이 개폐막식 주재공연에 참여하는 등 이의 시립예술단, 합창단, 국악단, 농악단 등 지역 예술단체도 함께 어우러지는 특별한 무대 등이 계속된다.

게다가 작년 춘향제에서 시민 참여가 돋보였던 인기 프로그램이었던 '발랑난장-대동길놀이'는 올해 4일(5월3일~5월6일까지)로 더 확대, 추진되는 만큼 올해는 <춘향전>에 나오는 명장면들이 더욱 각색돼 보다 풍성한 볼거리를 선사할 계획이다.

23개 읍면동에서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남원 춘향제에서만 볼 수 있는 대규모 퍼레이드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올해 춘향제는 더 확장된 공간에서 손님맞이

지난해 117만명이 찾아 전년 대비 3배 이상 모객에 성공한 남원춘향제는 이에 화답하듯 올해는 더욱 확장된 공간에서

30일~5월6일 광한루원·요천변 '소리의 고장' 7일간 소리의 여정 행사장 확장·다양한 프로그램 춘향제향미식 콘텐츠·대놀이가 등

시민과 관광객을 맞이할 예정이다.

그로인해 기존 광한루원과 요천 일대에서 진행되던 행사장을 금암공원과 유채꽃밭까지 확대, 먹거리 공간을 확충해 방문객이 더욱 많은 볼거리, 즐길거리, 먹거리 등을 동시에 즐길 수 있도록 준비 중이다.

금암공원은 야경 명소로 새롭게 변신하는 것은 물론 관광객들의 대표적인 휴식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예정이다. 이에 올해 춘향제 기간 동안에는 야간경관을 추가 조성해 아름다운 야경을 선보이고, 주간에는 더위를 피할 수 있는 시원하고 쾌적한 쉼터로 활용될 예정이다.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할 유채꽃밭은 승사교 아래 둔치 유휴지 3ha를 활용해 조성, 춘향제 기간 동안 대표적인 포토존으로 운영된다. 또한, 풀바 공연 무대도 마련되어 방문객들에게 즐거운 볼거리를 선사할 예정이며, 숙박을 해결하기 위해 차박존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먹거리 공간도 한층 더 확장된다. 기존의 경외상가, 사랑의 광장 앞 요천둔지에서 운영되던 공간을 요천 하단까지 확장해 더욱 넓고 쾌적한 환경에서 다양한 먹거리를 즐길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더욱 편리하고 즐거운 축제를 만들 예정이다.

#춘향제의 꽃 글로벌 춘향선발대회, 올해도 다양한 국적 춘향선발, 올해는 첫날 포문

지난해부터 국내에서 세계로 문화를 연 남원 춘향제의 꽃'글로벌 춘향선발대회'는 뜨거운 호응 속에 올해는 전야제 성격으로 축제 첫날 서막을 연다.

이에 오는 30일 오후 7시 30분 메인 공연장에서는 '춘향다움'이라는 춘향의 가치를 알리고 춘향의 열과 정신을 겸비한 당대의 가장 아름다운 춘향, 다양한 국적의 새로운 춘향이 선발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춘향의 정신을 기리고, 국민의 안전을 기원하는 제례의식인 '춘향제향'은 둘째날인 1일에 펼쳐지며, 메인 공연장에서는 저녁 6시30분부터 개막식 행사가 진행된다.

이밖에도 올해 춘향제에서는 기존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새로운 콘텐츠도 마련해 더욱 다채로운 경험을 선사할 계획이다. 실제로 △남원의 소리를 주제로 한 공연 및 전시 △축제의 밤을 화려하게 수놓을 일장춘몽 콘서트△전통과 현대 국악의 감각적인 조화를 담은 요즘국악 △남원 시민 300여 명이 함께하는 대규모 시민 공연 △춘향제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춘향제 아카이브 전시장' 등 100여개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신설됐다.

#백종원 미식으로 올해도 축제 먹거리 '성찬'

그뿐만아. 남원시는 지난해 제94회 춘향제에서 지역 농특산물을 활용해 남원에서만 맛볼 수 있는 1만원 이하의 착한 먹거리 개발로 117만명 방문객을 이끈 흥행보증수표 백종원 대표와 함께 올해도 제95회 춘향제에서 흥행 불패 성공 신화를 이어갈 예정이다.

앞서 백 대표는 지난 제94회 춘향제에서 품질 높은 다양한 먹거리를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해 춘향제에 대한 신뢰도 뿐만 아니라 화제성까지 높여 전년 대비 3배의 방문객인 117만 명이 다녀가게 하는 등 792억원의 경제적 효과 창출에 기여한 바 있다.

이러한 지역 상생 효과로 남원 춘향제가 단순한 전통문화축제를 넘어, '미식 관광 축제'로 자리 잡게된 만큼 남원춘향제는 올해도 백 대표와의 협업을 이어가며 '더본존' 및 '바베규존' 확대 운영, 신메뉴 개발, 지역 상권 컨설팅 등을 통해 더 발전된 미식 콘텐츠를 선보인다.

이에 따라 경외상가, 요천변 등지에 들어선 약 56개 부스 등 먹거리존에서는 특색있는 향토음식 등과 퓨전요리 등 남원춘향제에서만 맛볼 수 있는 먹거리를 만나볼 수 있다.

이외에도 올해 대한민국 동행축제와 함께'세일페스타'를 진행하는 만큼 남원시내 상점이나, 식당 등을 방문하게 되면 특별할인이나 경품 추첨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이번 춘향제 축제에서는 온라인 플랫폼인 네이버 쇼핑 LIVE를 활용한 라이브커머스 부스를 운영 및 판매해 지역 농·특산물은 물론 다양한 제품까지 실시간으로 구입할 수 있도록 했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4.19와 같은 민족의 격변기 때조차 개최됐던 춘향제가 올해로 95번째를 맞이한다"며 "대한민국 최고의 전통축제라는 명성에 걸맞게 올해는 100회를 향한 담대한 걸음으로 '소리'를 주제로 다채로운 프로그램들을 풍성하게 마련한 만큼 축제에 많이 방문해주셔서 춘향의 가치와 정신이 담긴 다양한 징표를 남원에서 발견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남원=정하복 기자